

지역 소식통

김제사랑상품권  
혜택 홍보 본격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사랑상품권의 다양한 혜택 홍보 및 모바일앱(고향사랑페이) 활용 안내 등을 위해 지난 9일 만경읍 이장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민홍보에 나섰다.

이번 김제사랑상품권 대민홍보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적용으로 상품권 발행액이 감소(100만원→70만원)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읍면동의 이동장회의 등 주요 회의를 활용해 대면회의를 하는 읍면동부터 순차적으로 방문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치유(chee:you)  
수직정원 만들기 경진대회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정원 가꾸기를 통해 정서적 치유(治癒)를 돕고 응원(cheer up)하고자 '2024년 치유(chee:you) 수직정원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팀별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시 오는 24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이메일(munis7272@korea.kr) 또는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팀 구성은 치매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자자를 필수 포함해야 하며 대상자 미포함시 접수는 취소된다.

서류심사로 통과된 10개팀은 시 치매안심센터 건물 외벽에 설치한 2mX2m 규모의 전시철망을 제공하고, 30만원의 정원 조성 비용을 지원받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재활용품 등을 적극 활용해 창의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면 된다. 작품은 디자인 및 창작성, 식물의 다양성, 정원 완성도 등의 심사항목 평가를 통해 김제시장상 표창과 함께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 작품들은 한달여 정도 전시할 예정이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새만금 상생 고려 조속 관할결정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 17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앞두고

오는 17일 2024년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심의 안전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 결정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군산시의 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인 안전에 대한 심의 중단 요구 행위는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로 결정을 해주지 않아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정당한 매립지 관

할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순차적 매립이 이루어지는 매립지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된 뒤 곧바로 관할결정이 이루어져만 기반시설 공급 및 행정공백이 최소화되어, 거주 예정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등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 관할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지체 사유로 주민불편과 입주기업 피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문화시설과 고군산군도 관광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에 추가적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의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외측의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부여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목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라 현재 상정되었거나 앞으로 상정될 안전에 대해, 기존에 정립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 상생·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SA 등급

유희태 완주군수, 도내 군 단위 유일 민선 8기 2년 연속 달성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북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민선8기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관한 '2024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완주군이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해 실시한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고, 올해 공약이행평가에서도 SA를 받으며 2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

약자료에 대해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등 4대 분야를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평가를 진행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4대 분야 113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배심원제, 공약이행평가단 등을 활용해 공약실천계획 수립부터 일부 공약사업 조정, 공약사업의 이행사항 평가 및 건의, 자문 등 모든 단계에 실질적 수혜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예산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실효성 있게 공약을 추진한 점이 SA 평가의 원동력이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공약이행 평가의 최우수등급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우선, 현장중심, 혁신행정이라는 군정목표를 최우선으로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 민선 8기 공약은 4대 분야 113개로, 43% 이행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 힐스타운 사암,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2027년까지 412억 투입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위기 속 차별화된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 연계 협력사업인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힐스타운 사암'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 및 수도권 은퇴자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된 힐스타운 '사암'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상동동 산 97-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지평선 제2산업단지 근로자 및 수도권 은퇴자를 위한 주거·생활인

프라·생활서비스가 연계된 수요맞춤형 주거단지다.

지역활력타운 부지에 타운하우스 80세대(4층이하 10동), 단독주택 18세대,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근린생활형 소규모실내체육관,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해 통합형(일자리연계 및 은퇴자마을)으로 수요 맞춤형 주거제공을 통한 건강한 삶과 편안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의회, 구인·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앞장

JOB-부킹 기업탐방

구인기업 설명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인제육성과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0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전남(9일) 완주군 가족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JOB-부킹데이 기업탐방 및 구인기업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남용 의장, 성중기·유의식·김재현·김규성·이순덕 의원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고용

노동부 전주지청 황정호 지청장, 완주군가족센터 김정은 센터장, 결혼이민여성(구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구직자 현장 견학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 습득 및 진로·취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 지원과 관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정식케미칼, 대림씨엔씨, (주)오디텍 기업체 현장을 견학하며, 다양한 생산공정(시스템)과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현황 및 구인 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인사담당자와 채용 관련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현 완주산업단지진흥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관내 우수 기업 홍보 및 구인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현 의원은 "이번 JOB-부킹데이 기업탐방 및 구인기업 설명회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 기업 일자리네트워크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운영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군의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마나시 계절근로자입국환영식을 가졌다.

# 완주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완주군에 필리핀 마나시 계절근로자 25명이 입국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 상반기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228명 중 198명이 입국 완료됐다.

완주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운영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군의원,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 조영두 다문화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환영식을 가졌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행사 후에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교육과 농작업안전교육

을 진행했다.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올해 전국 19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완주군 지난해 시범사업에 2회 참여했고, 올해 첫 정식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조기적응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블루베리, 조경수 등 관내 농가에 배정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